



천향길 베네딕다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 아버지의 집

네 살 때 아버지를 여윈 저는 늘 빈자리를 느꼈습니다. 이 '원체험'은 나이보다 일찍 철들게 했고 삶을 스스로 개척하게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엔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하느님이 저를 키웠다고 말하지만, 가끔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라면 성가정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늘에서 온 가족이 아침저녁으로 기도하고 미사 참례를 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친가 외가가 다 구교집안이라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혼인성사와 병자성사, 신품성사 등 삶에서 칠성사의 은총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큰 사랑을 받고 자랐어도 부모 없이 자랐다고 욕할까 봐 몃시선에 위축되곤 했습니다. 더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편견이 좀 심하잖아요?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묵상하는데 '아버지의 집', '거처할 곳', '자리'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통증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갑자기 눈물이 펄펄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성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위로를 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집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도 제집이 아니었고, 작은아버지 집도 제집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결혼해서 가정을 가졌지만 동생 집도 제집이 아니었고요. 하느님의 집이라고 수도원에 들어왔지만, 제가 생각했던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원체험이 너무 아파서 어디에도 마음 붙이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사는 저를 주님께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살자고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사이 호주제가 폐지되고 세상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혼족, 혼밥이란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겨 봅니다. 그 어디에도 집이 없어 외롭고 쓸쓸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들도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그러기에 아버지 집으로 가는 확실한 길은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견진성사는 주교만 집전하나요?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와 함께 입문 성사로, 성령의 은사를 주고 신앙을 굳건히 해준다 하여 견진confirmation이라고 합니다. 교회법에서는 세례받은 어른은 종대한 이유로 방해받지 않는 한, 세례 후 즉시 견진성사를 받고 성찬 거행에 참여하여 성체도 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866조) 하지만 유아세례를 받았다면, 적어도 열두 살 이상이 되어야 견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진성사는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가 줍니다. 필요한 경우 주교가 사제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곧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는 주교가 아니라도 어느 사제나 줄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883조 3항)

클.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